

+ 이장섭 · 방송과기술 기자

“디지털 방송기술을 쉽게 알려주고 싶었다”

이용희(MBC 보도기술부 차장)



이용희 차장은 1983년에 MBC에 입사하여 현재는 송출기술국 보도기술부에 재직 중이다. 본지인 '방송과기술'에 방송기술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꾸준히 기고하고 있다. 그동안의 원고를 살펴보면, 아날로그 방송기술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NTSC의 측정', 공중파 디지털 방송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우리나라 공중파 디지털 방송 무엇이 문제인가?' 등을 논고하였고, 2003년에는 '일본의 최신 방송기술 동향'을 꾸준히 소개하여 HDTV 제작 시스템 및 기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집필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용희 차장은 “방송기술을 공부하기 시작하던 시기에 정보에 목말랐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입사 때나 지금이나 방송기술에 대해 정립되어 있는 이렇다 할 서적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다. 더군다나 요즘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새로운 변혁기로 디지털 학문에 대한 정보가 절실하다”며 책 발간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 놓았다.

번역에 임하는 마음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여 새로운 변혁을 추구하고 있으며, 아날로그 방송기술은 디지털의 모체로 남아있지만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근래에 들어서는 이공계 기피현상과 맞물려 우리가 소중하게 이루어온 기술인프라가 소실되고 있어 걱정이 된다. 앞으로 우리가 먹고살 동력이라 할 수 있는 기술인프라 구축에 미약한 힘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바람에 더해 방송기술 분야의 징검다리를 놓는다는 심정으로 번역에 임했다.

‘알기 쉬운 디지털 방송기술’은 어떤 책

이 책은 Michael Robin, Michel Poulin이라는 사람이 “Digital Television Fundamentals”(Video and Installation of Video and Audio System)이라는 명으로 출간한 것을 번역한 것이다.



사실적인 바탕 위에 현업인들이 알기 쉽게 풀이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방송기술을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연구자나 개발자와 같이 전문적인 내용을 깊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방송기술자라면 이 정도의 내용은 알고 있으면 좋겠다고 정도의 수준으로 디지털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방송기술의 세부적인 영역을 영상 신호의 발생, 프로세스, 기록, 송출 등으로 나눈다. 이러한 학문에 대해 방송기술에 입문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영상, 음성 양 방향에 대한 아날로그 원리를 설명한 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영상, 음성 디지털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제적인 디지털 규격이나 그 실제 시스템의 운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번역을 결심하게 된 계기

번역을 결심한 것이 3년 전 영상기술부에서 보도기술부로 전근하고 난 이후다. 우연히 이 책을 보게 되었는데, 현업에 몸담고 있는 방송기술인으로써 디지털 방송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재가 그리 많지 않아 고생하던 옛 기억이 떠올랐다. 현업에 몸담고 있는 선배로써 후배들에게 배울 수 있는 시야를 넓혀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생스럽지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로 기쁜 마음으로 번역을 시작했다.

번역의 어려움

3년의 시간동안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현업을 해나가며 번역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둘까하는 생각도 여러 번 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성원과 시작한 일의 뜨거운 열정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너무나 기쁘다.

이 책의 볼륨에서 느낄 수 있듯이 약 1,000여 페이지의 많은 원고량으로 처음에는 과연 가능할까하는 반신반의한 마음이었다. 거기에,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크게 밀려왔고, 마음이 흔들리며 포기하고 싶다는 충동이 끊임없이 솟구쳤다. 하지만, 하루하루 투자한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후배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계속 번역을 하게 했다.

다음은 언어의 표현문제가 있었다. 다른 언어권의 원서를 우리 문화권으로 소개하는 책이라 적재적소에 적합한 언어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로 어려웠다. 특히, 외래어의 한글표기는 그다지 많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아직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아쉬움도 남는다. 또한, 시중의 많은 번역서들이 직역을 해놓아서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고, 번역함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이해하기 쉽게 하여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향후의 저술 계획

좋은 책이 있다면 한두 번 더 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육·칠십의 원로 학자들이나 현업 은퇴자들이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빚어낸 소중한 내용을 새로운 책에 가득 채워 후세에게 물려주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는 기술의 전통성을 잇는다는 맥락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노력의 결과가 쌓여서 그 분야의 역사가 되고, 그런 열정이 모여 기술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계속 공부하여 방송기술 발전의 작은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후배들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고 싶다.

전하고 싶은 말

요즘 경제가 안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서 방송기술인들에게도 희망이 충만한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소원을 빌어 본다.

디지털 방송은 제작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디지털화가 정착이 되었지만, 송출 측면으로 본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도 많다. 특히, 아날로그 방송종료 시점인 2012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디지털 방송의 직접 수신가구가 20%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시청자에게는 수신에 대한 새로운 부담을 주게 된다. 방송사업자에게는 답답한 앞날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로 해결되어 아날로그 시대처럼 효율성 있는 방송 시스템으로서 지상파 방송사가 우뚝 섰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방송기술을 공부하는 학생은 물론 방송 현장의 방송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출간하기까지 도와주신 문화방송 선·후배 여러분과 '도서출판 한산'의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